

철도파업 첫날 광주송정역 열차 52회 중단...장기화 우려

조합원 2천600여명 중 50% 동참...KTX·일반 등 감축 운행 예매 표 취소 이용객 '발동등'...호남본부, 송정역서 출정식

“연말이라 타 지역에 갈 일이 많은데 길어질까봐 걱정이 큼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이 일제히 총파업에 들어간 5일 오전 광주 송정역의 분위기는 다소 어수선했다. 예매했던 표가 노조 총파업의 영향으로 취소됨에 따라 일부 이용객들이 일정에 차질을 겪어왔다. 철도노조 호남본부에 따르면 이날 전체 조합원 2천600여명 중 필수 근무 인력을 제외한 1천4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광주 송정역 출발·도착 고속열차(KTX) 중 30회(호남선 19·전라선 11)의 운행이 중단됐다. 일반열차(ITX·무궁화)는 호남선 13회, 전라선 9회 등 총 22회가 운행되지 못했다. 이에 줄지어 발이 묶인 이들은 창구로 가서 “취소표가 있냐”고 물었으나

티켓을 손에 쥔 이들은 드물었다. 때문에 일부는 코레일 측에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예매했던 용산행 열차가 취소됐다는 이덕호(60대)씨는 “인천까지 출장을 가야 하는데, 오후 열차 모두 매진이란 난감하다”며 “천안까지 간 뒤 입석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겨우 새로운 표를 구한 이들 역시 마음을 놓지 못했다. 시민 김모(30대·여)씨는 “열차 표가 취소됐다는 소식에 애플리케이션을 켜고 1시간 동안이나 취소표가 있는지 찾았다”며 “예정보다 늦은 시간의 표라도 겨우 구해서 다행이지만, 오늘 같은 상황이 길어지면 직접 운전해서 가야 할 판”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열차 이용객들의 이 같은 불평은 총파업 기간 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



5일 오후 광주송정역에서 열린 전국철도노동조합 호남본부 총파업 출정식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애리 기자

는 가운데 철도노조 호남본부는 이날 오후 2시께 송정역 광장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가졌다. 참여 인원은 경찰 추산 1천여명이었다. 대회를 통해 노조는 사측인 코레일에 ▲임금 가이드라인 25% 수준의 기

본급 인상 ▲외화를 통한 인력 감축 중단 ▲운전실 감시카메라 중단 등을 촉구했다. 노조는 “공기업 중 최하위 임금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은 없고, 인력이 부족해 연평균 2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다”며 “미래가 없는 임금과 안전

이 보장되지 않는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사기와 자부심은 사라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노조는 “전날 사측과 늦은 시간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6가지 핵심 쟁점 사항 중 ‘4조 2교대’와 ‘승진 포인트 제 도입’ 외에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영진을 상대로 철도노동자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화물열차는 호남선의 경우 평상시대로 운행됐으나 전라선은 3회 중 2회가 취소돼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물류 차질 등이 우려되고 있다./주성학 기자

가혹행위로 숨진 선원 시체 유기 선장 ‘징역 28년’

공범 조리장은 징역 3년...범행 7개월여 되도록 시신 미발견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구타와 각종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사망하자 시신을 바다에 버린 선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이지혜 부장판사)는 살인,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28년을 최근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에 대해선 징역 3년형을 내렸다. 다만, 살인방조에 대해선 무죄 판결했다. A씨는 신안군 해상에서 새우잡이를 하던 배의 선장으로, 지난 4월30일 같은 배의 선원 C(50)씨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바다에 버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C씨가 작업이 미숙하고 동료 선원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고, 숨지기 전까지 가혹행위를 일삼아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각종 둔기를 이용해 몸

을 무차별적으로 때린 후에는 선박용 청소호스로 바닷물을 뿌리기도 했다. 제대로 된 잡자리마저 제공하지 않은 A씨는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 비가 오는 날에도 천장 없이 전면 개방된 ‘아구 적재소’에서 자게 했다. 잠들기 전 여는 때처럼 폭행 등을 당한 C씨는 저체온 상태에 빠졌고 그로부터 15분 만에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C씨의 사망을 확인한 A씨는 범행은 폐를 위해 그동안 가혹행위를 함께 해 온 조리장 B씨와 공모해 피해자의 시신을 바다에 던졌다. 이들은 시신이 떠오르지 않게 그물에 쇠파이프 등 무거운 물체를 함께 넣어 유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C씨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해수를 줬다”며 “시체를 유기한 탓에 정확한 사인을 특정하기 어렵지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망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는 망망대해에서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선장으로부터 무차별한 폭행을 당해 극단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유기된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안재영 기자

순천 무단횡단 70대 차에 치여 숨겨

순천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70대가 차량에 치여 숨졌다. 5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께 순천시 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운전자 A(50대)씨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건너던 B(70대)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순천=정기 기자

영주권 사기 ‘제니퍼 정’ 항소심도 중형

법원, 병합 재판서 징역 9년 선고...동생은 징역 3년6개월

자신을 미국에서 온 의사이자 외국계 의료기기 회사 한국 대표로 소개하며 미 영주권 취득과 자녀 유학 등을 빌미로 40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제니퍼정 A(40대)씨에 대해선 징역 9년, 징역 3년6개월의 1심 유죄 판결을 했다. 광주지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에 대한 항소심 병합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그의 여동생 B(40대)씨에 대해선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 징역 3년6개월의 1심 유죄 판결을 했다. A씨와 B씨는 자녀 유학이나 미국 영주권 취득 알선 명목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각각 41억여원, 6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형량은 A씨 징역 9년, B씨 징역 3년6개월이었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 8명에게 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추가 선고 받았다. 이번 병합 재판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사기 범행 액수가 47억원에 달한다”며 “또 A씨에 의해 도용 피해를 본 외국계 기업도 강력한 처벌을 추구하고 있으나 일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2018년 광주시에 3천2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제한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안재영 기자

김성한 전 선수 조형물 훼손...10대 취객 소행

광주 북부경찰 입건

광주 북구 패션의거리에 조성된 김성한 전 프로야구 선수 조형물에 취객에 의해 훼손된 것으로 밝혀졌다. 5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재물 손괴 혐의로 A(19)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0월23일 북구 용봉동 패션의거리에 설치된 김성한 전 해태 타이거즈 선수 조형물에 달린 야구방망이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지인과 함께 방망이를 잡고 흔들다 부러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전 선수 조형물은 광주북구가 지난 2021년 패션의거리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했는데, 2023년 5월 한 취객이 방망이를 부러뜨리면서 훼손된 바 있다. 그로부터 1년5개월이 지나서 수리됐지만,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또 부러진 채 발견됐다. 북구는 훼손 방지를 위해 알루미늄 소재 방망이를 교체하는 등 조형물을 복구했다. /안재영 기자

방수제 · 바닥재 · 환화제 · 천연 황토 코팅제 건물 보수제 전문 생산업체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기술이 필요없습니다.

방수! 바닥! 직접 공사하세요!

적용현장 및 시공범위

옥상, 외벽, 지하실, 공장바닥, 주차장, 흙집, 물탱크, 양어장, 수영장, 화장실 타일, 기와집, 내구성 및 평활성을 요구하는 현장, 기타 방수를 요하는 모든 건축물

생산 품목

[DK-301] 강력접착 도막 방수제 / 드림탄²
 [DK-303] 상도코팅방수제(녹색, 회색)셀프탄
 [DK-305] 무색침투도막방수제 / 드림데칼³
 [DK-307] 균열 보수제 / 다막스
 [DK-306] 수용성 투명 방수제 / 탑코팅
 [DK-308] 천연황토코팅제 / 황토리
 [DK-5000] 광택증진 & 오염방지코팅제 / 오염스톱

특징

- 빗물은 막고 습기는 내보낸다
- 기술이 필요없다
- 숨을 쉬기 때문에 들뜨지 않는다
- 경제적이다
- 무독성 무기질 친환경 방수제다
- 습윤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 미끄럼, 방지기능을 한다
- 옥실 및 화장실 타일을 뜯지 않고도 할 수 있다
- 특히 인증 신기술 공법이다
- 소비자가 인정했다

※전화 문의시 방수·바닥재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 구입시 시외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시중에 검증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케미칼 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업체입니다.

특허청

DRUM

DRUM

자매품 바르는 황토벽지 천연황토코팅제 DK-308 황토리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DRUM 드림케미칼코리아
DREAM CHEMICAL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chemicalkorea.com